

## 결혼식 주례에 얽힌 이야기들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전 효택

교수생활을 하다 보면 재직할 학과 학부의 학사과정 졸업생이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또는 졸업생들로부터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게 된다. 특히 필자 연구실 출신의 석박사 졸업생들의 주례 청탁은 거절하기가 몹시 어려운데 필자 나름으로는 나이 50이 넘으면 주례를 서야 하겠다고 걱정하여 나이 50이 안 되었다는 핑계로 잘도 사양하여 왔다. 그러나 필자 연구실에 재학 중이던 남녀 학생이 연애결혼을 하게 되어 주례를 부탁하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 처음 주례를 선 나이가 만 47세였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례를 섰다는 소문 때문인지 계속 주례를 서게 되었고 어느 해인가는 3개월간 매달 한 번씩 주례를 한 적이 있어 내가 주례교수인가 하는 농담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있다.

신랑 신부에게는 물론 양가의 가족에게 대단히 중요한 결혼 행사이니만큼 주례를 서는 인사도 당연히 준비와 조심에 긴장을 하게 되며 적어도 결혼식 30분 전에 미리 식당에 가서 준비를 한다. 필자의 주례사 내용은 먼저 양가에 축하드리며 주례를 서게 된 인연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신랑 신부를 간단히 소개한다. 다음에는 신랑 신부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첫째 양가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받는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을 권면한다. 둘째로는 서로 믿음과 책임을 지도록 권유하고 셋째로는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하며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양가의 가족들에게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니만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사랑의 열매인 아들 딸 소식을 기대한다는 말로 약 7, 8분여의 주례사를 마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주례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나 비교적 주례 말씀을 잘 해 주신다는 인사 차례를 받으며 이 주례와 얽힌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하려 한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주례는 탈북하여 재외국인으로 우리 학부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졸업한 제자의 주례였다. 이 제자는 재학 중에는 탈북학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주례를 맡게 되어 알게 된 경우이다. 졸업 후 국내 기업체에 취업하고 중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사내에서 신부를 만나 연애결혼을 하게 된 경우인데 결혼은 서울 근교에서 하게 되었고 일주일간 단수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결혼식을 하게 된 축복의 자리였다. 문제는 결혼 사회자가 회사에서 알게 된 개그맨이었는데 결혼식장에도 수십 분 늦게 나타나 결혼식이 늦추어지고 예식을 자기 스타일의 쇼 형태로 진행하려는 태도가 불량하여 주례 후 완전히 기분을 상한 기억이 있다. 필자는 결혼식 시작 전 사회자에게 결혼식은 엄숙한 축하행사이므로 심한 이벤트성 스타일의 진행을 하지 말라고 미리 당부하는데 사회자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 주의를

하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다. 결혼식장에서는 꾸중하지 않고 조용히 마치고 식후에 신랑 친구를 통해 신랑과 사회자에게 언짢은 내용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혼식 주례는 하고 나서도 후회하는 경우이다. 다행히 신랑이 예의 바른 제자인지라 신혼여행을 가셔도 단수비자로 입국이 불가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국제전화로 해 주어서 조금은 위안이 된 경험이 있다.

그동안의 많은 주례 중 감동받은 작은 결혼식이 기억난다. 신랑 신부 가족과 하객이 약 100명 정도로 기억되는데 한 홀의 각 원형 테이블에 하객들이 앉아 행복한 결혼식을 마치고 식사를 나누는 작은 결혼식인지라 주례 단상 앞에 마련된 주례자의 식사 자리에서 식사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결혼식이었다. 필자는 주례 후 신랑 신부와 단체사진을 찍어 주고는 곧바로 예식장을 빠져나가 가족들에게 가능한 한 신경 쓰지 않도록 또한 대접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날만은 작은 결혼식 식사에 동참할 수밖에 없던 기억이다.

주례를 서는 장소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이나 동해 등 지방이다 보면 하루가 완전히 결혼식 참가로 지나가게 된다. 대학에서는 50대 교수라도 여전히 교육과 연구생활이 바쁘고 특히 학기말에는 많은 업무로 하루하루가 귀중하기 마련인데 사실 교수생활하며 날짜보다는 요일에 따라 생활함이 보통이다. 제자들이 누구에게 주례를 부탁할 수 있겠나 싶어 이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주례 승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동안 주례를 하면서 필자 나름의 철학은 주례는 제자들 결혼식에만 국한하며 필자의 고교 동기나 대학 동창 친구들 또는 대학의 후배들 자녀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주례가 많아지면 우선 부담이 되고 더욱이 친구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은사나 직장 상사에게 주례를 부탁함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세상에 절대라는 경우는 없는 것인지 어느 토요일 오전에 고교 동기이자 우리 대학의 같은 학과 동기 동창인 친구가 부부동반으로 연구실을 갑자기 방문하여 처음에는 부부가 관악산 등산에 왔다가 방문하였나 하였다. 친구 부인의 말씀인즉슨 이번에 외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과 고교 및 대학의 같은 과동기이고 우리 형편을 잘 아는 전교수님이 주례를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친구 자녀들의 경우 그동안 주례를 해오지 않은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 원칙을 깨면 그동안에 거절당한 친구들에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았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려도 통하지 않았다. 만 47세에 주례를 시작하여 61세 되기까지 친구들 자녀는 주례를 하지 않았다는 절대 원칙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으며 이 이후로는 친구들 자녀 주례를 거절할 수가 없어 이 또한 주례가 많아진 원인이 되었다.

주례를 하며 섭섭한 경우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랑신부가 인사하러 오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그동안 인성 교육을 잘못하였구나 하는 후회와 무심한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전화로 연락하거나 제자를 시켜 왜 인사하러 오지 않느냐고 잔소리를 한다면 마치 답례를 기다리는 모양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결코 연락하지 않았다. 필자는 주례를 맡게 되면 결혼식 전에 신랑 신부를 연구실이나 학과 사무실로 불러

신랑 신부를 소개받고 주례사에 언급할 간단한 약력을 들은 후 예식 중의 성혼서약이나 가족인사 등에 대한 순서를 상의한 후 결혼생활에 필요한 당부를 하며 주례자에게 승용차를 보낸다든지 등의 신경을 쓰지 않도록 권유한다. 결혼식 당일에는 결혼 축의금을 내고 주례를 마친 후 신랑 신부와 기념사진을 찍고 나면 곧장 사라지는 일이 필자의 원칙이다.

간혹 신랑 신부 측에서 감사하다며 거마비를 주려 하거나 과도한 선물은 모두 거절해 왔으며 부모님이나 신랑 신부가 섭섭하지 않도록 “감사하다는 의미로 주시는 거마비 현금을 받으면 저는 대학에서 짤립니다”라는 말씀으로 사양하여 왔으며 이 부분에서는 지금도 잘 해 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결혼식 후 먼저 결혼한 친구나 선배에게 “주례 선생님 사례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고 그 때 대답이 “거마비를 드렸더니 받으시던데” 하는 말이 오간다면 결국 주례자는 거마비를 받는 인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주례 부탁을 일주일 전이나 수일 전 갑자기 부탁해 오는 경우는 거의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 필자도 거절하여 왔으며 주례자 입장에서 얼마나 준비와 마음가짐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지를 신랑 신부와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식 장소도 그동안 매우 검소한 장소로부터 호텔까지 다양하여 꼭 이렇게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 필자는 다행히 금년 조선일보의 작은 결혼식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서명을 한지라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마음이 편해지리라 보이며 친지들께도 양해를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제는 2012년 8월 말로 대학 정년도 하였으니 주례 부탁도 사양하며 앞으로는 후배 교수들에게 또는 이미 나이 50이 다 된 제자교수들에게 주례 부탁을 넘겨야 하겠고, 2013년 새해부터는 주례 부담에서 벗어나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